www.stylechosun.co.kr

202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PIAGET

Possession
with Gianna Jun

Maison of *Extraleganza* since 1874

1

2

3

4

Art of Colour

피아제에 있어 '컬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메종의 정체성이자 창조적 언어이며 피아제의 미학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다. 2026년 피아제는 시대를 넘어 이어져온 메종의 컬러 유산을 더욱 깊이 탐구한다. 새로운 오너멘탈 스톤의 세계를 탐구하며 '아트 오브 컬러(Art of Colour)'를 다시금 펼쳐내고, 시대를 초월한 현대적 감각이라는 메종의 창조적 정신을 이어간다. 올해 공개되는 새로운 컬렉션 전반에는 피아제 특유의 대담한 스타일 아래 다채로운 오너멘탈 스톤을 담았다.

피아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피아제가 완성해온 색채의 미학

1874년 스위스 라 코토페(La Côte-aux-Fées)의 작은 공방에서 워치메이커로 출발한 피아제는 정밀한 무브먼트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 워치메이킹 세계를 구축해왔다. 메종의 창립자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는 탁월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중심 가치로 삼았고, 이러한 철학은 세대를 거쳐 피아제의 창조적 유산으로 이어졌다. 이후 메종은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을 넘어 시계와 주얼리를 예술적 오브제로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미학을 완성해나갔다.

1950년대 말 선보인 울트라-씬 무브먼트는 피아제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는 훗날 알티플라노 컬렉션을 탄생시키며 메종의 대표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한다. 이렇듯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감각을 동시에 추구하는 피아제의 철학은 이후 워치는 물론 주얼리 전반에 걸쳐 더욱 대담하고 감각적인 방향으로 확장된다.

1963년부터 피아제는 라피스 라줄리, 터쿼이즈, 말라카이트, 타이거 아이 같은 생동감 넘치는 오너멘탈 스톤을 워치 다이얼에 과감하게 적용하면서 새로운 컬러의 미학을 선보여왔다. 이후 컬러는 피아제만의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미학을 상징하는 '엑스트라레간자(Extraleganza)'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자연이 만들어낸 컬러의 유산, 그리고 골드

피아제는 오랜 시간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왔다. 메종에 자연은 단순한 모티브가 아니라 컬러와 질감, 빛의 움직임을 발견하게 하는 창조적인 원천이다. 특히 오너멘탈 스톤은 피아제가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라피스 라줄리의 깊고 신비로운 블루, 말라카이트의 유려한 초록빛 패턴, 타이거 아이가 지닌 금빛 결은 자연이 만들어낸 고유한 예술 작품과도 같다. 피아제 장인들은 각각의 스톤이 지닌 개성과 결을 최대한 존중하며 작업을 이어나간다. 동일한 광물이라 하더라도 무늬와 색의 농도, 빛 반사 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은 단 하나뿐인 유니크 피스로 완성된다. 메종은 스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감추기보다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세공을 진행하며, 소재 본연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피아제의 컬러 세계를 완성하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골드다. 오랜 시간 '하우스 오브 골드(House of Gold)'라는 별칭으로 불려온 피아제는 골드를 단순한 귀금속이 아닌 빛과 온도를 지닌 소재로 다뤄왔다. 메종 특유의 정교한 인그레이빙과 텍스처 기법은 골드 표면에 풍부한 깊이와 섬세한 광채를 부여하며, 빛의 흐름에 따라 다채로운 표정을 만들어낸다. 옐로 골드는 태양을 닮은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고, 화이트 골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완성한다. 로즈 골드는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하며 컬러 스톤과 감각적인 조화를 이룬다. 피아제는 이처럼 다양한 골드 컬러와 오너멘탈 스톤을 결합해 메종 특유의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미학을 완성해왔다. 자연의 색과 빛,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만나며 피아제만의 독창적인 컬러 팔레트가 탄생한 것이다.

시간을 물들이다

1960년대, 피아제는 워치메이킹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던 오너멘탈 스톤 다이얼을 과감하게 선보이며 시계를 예술적 표현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라피스 라줄리와 터쿼이즈, 오팔, 말라카이트 등 다양한 스톤을 다이얼에 적용한 피아제의 워치는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닌 감각적 오브제로 주목받았다. 특히 피아제는 컬러의 조합을 통해 기존 워치 디자인 문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다. 강렬한 컬러 대비와 예기치 못한 소재의 조화,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색의 흐름은 메종만의 시그너처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장식적 접근이 아니라 시간을 더욱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려는 피아제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같은 시대 선보인 '스타일 셀렉터(Style Selector)' 역시 메종의 창조적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고객이 다이얼과 브레이슬릿, 스톤과 컬러 조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피아제는 이를 통해 워치를 단순히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스타일 오브제로 재정의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감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 피아제 컬렉션 역시 대담한 컬러와 독창적인 소재 조합을 통해 메종만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간다. 클래식한 우아함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피아제의 디자인은 시대가 변화해도 한결같은 독창성을 보여준다. 메종에게 컬러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시간을 초월해 이어지는 창조적 언어인 셈이다.

살아 숨 쉬는 컬러의 유산

피아제의 세계에서 컬러는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다. 메종은 컬러를 통해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착용자의 개성,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표현해왔다. 선명한 블루와 짙은 그린, 태양을 연상시키는 골드 컬러는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를 지니며 독창적인 조화를 이룬다. 강렬한 에메랄드 그린은 생동감과 젊은 감각을 표현하고, 루비의 붉은빛은 열정과 관능적인 분위기를 상징한다. 깊고 차분한 사파이어 블루는 세련된 우아함과 고요한 에너지를 전하며 작품에 균형감을 더한다.

다이아몬드는 피아제 컬러 세계에서 빛의 움직임을 완성하는 존재다. 특히 메종 특유의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 파베는 마치 눈부신 설원이 햇빛 아래 반짝이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크기가 서로 다른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하는 이 기법은 빛을 더욱 풍부하게 반사시키며 메종의 고향인 라 코토페의 겨울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화려함과 절제미, 자유로움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디자인 안에서 컬러는 형태에 생명력을 더하고 메종만의 존재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메종이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다. '탁월함의 산실(Ateliers de l'Extraordinaire)'이라는 모토 아래 피아제 장인들은 골드 세공과 젬스톤 세팅, 섬세한 폴리싱 기술을 결합해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피아제 장인들은 완벽한 컬러 밸런스를 구현하기 위해 젬스톤의 투명도와 색의 깊이, 반사광까지 세심하게 고려한다. 스톤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높은 수준의 안목과 기술력이 요구되며, 정교한 세팅과 세공을 통해 각각의 컬러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완성한다.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피아제가 오랜 시간 하이 주얼리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피아제 폴로, 라임라이트 갈라, 포제션, 피아제 로즈 같은 상징적인 컬렉션은 모두 이러한 창조적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각각의 컬렉션은 단순한 럭셔리 오브제가 아니라 메종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미학과 기술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메종 피아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니 시브리에르는 "선명하고 깊이 있는 컬러는 작품에 더욱 현대적이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피아제의 컬러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역할을 한다. 컬러는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착용자의 감각과 개성을 드러내며, 메종의 창조적 철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피아제는 컬러를 통해 새로운 미학을 탐구한다. 오너멘탈 스톤과 젬스톤,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메종의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확장한다. '아트 오브 컬러'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피아제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창조적 유산의 본질이다. 컬러는 피아제의 과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를 빛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존재하고 있다.

문의 1877-4275 에디터 **성정민**

5

6

7

8

1 1969년 공개된 포토그래퍼 알베르토 리조(Alberto Rizzo)의 피아제 광고 캠페인.
2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브리짓 니더마이어(Brigitte Niedermair)가 담은 피아제 식스티 커프 워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랙 오팔 다이얼. 데코 팰리스(decor palace) 골드 인그레이빙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피아제 355P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 브리짓 니더마이어의 피아제 앤디 워홀 워치 광고 컷. 45×43mm 사이즈의 클루 드 파리 마감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블스 아이 약 6.3캐럿으로 완성한 다이얼이 특징이다. 501P1 매뉴팩처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 피아제 커프 워치 아카이브 이미지. **5, 7** 피아제 스타일 셀렉터 아카이브. **6** 1970년 미국 〈보그〉 매거진에 실린 피아제 오너멘탈 스톤 광고 비주얼. **8** 피아제 로데이팅 다이아몬드 다이얼 아카이브 비주얼.

(위부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제션 데코 팰리스 링,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포제션 데코 팰리스 링, 총 4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데코 팰리스 링, 터쿼이즈와 소달라이트, 듀모티어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는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링, 1개의 포제션 세팅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피아제 포제션 데코 팰리스 링.

Gemlight Symphony

청명한 오너멘탈 스톤과 독창적인 실루엣이 조우한 피아제의 세이프와 컬러.

PHOTOGRAPHED BY **KIM JAE HOON**

(위부터) 1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데코 팰리스 펜던트 네크리스, 약 1개럿의 터쿼이즈 소달라이트, 2개의 듀모티어라이트, 약 0.06개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조합한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펜던트 네크리스, 약 1.4개럿의 터쿼이즈와 소달라이트, 2개의 듀모티어라이트와 1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더한 피아제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펜던트 네크리스.

지름 42mm 케이스에 시그너처
블루 다이얼과 실버 컬러
날짜창, 슈퍼루미노바® 핸즈
및 아워 마커로 완성한 피아제
폴로 시그너처 데이트 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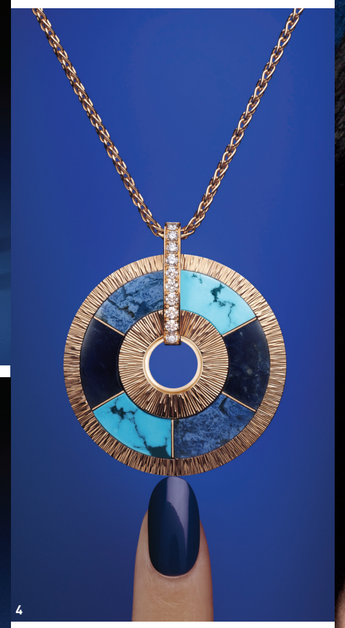
(왼쪽부터) 약 2.35캐럿의 블루
쿼츠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 잡는
식스티 워치, 새틴 브러시 처리한
실버 컬러 솔라 다이얼의
피아제 식스티 워치.

5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라페즈 형태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3백8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브레이슬릿이
우아함을 자아내는 피아제 식스티 워치.

(위부터) 36mm 스틸 케이스에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피아제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
워치, 42mm 스틸 케이스에 1110P
자체 제작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피아제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 워치
모두 **피아제.**

헤어·메이크업 **김민지**
모델 **LUIZA, VINCIUS**
객원 에디터 **임나정**

문의 1877-4275



"예상 밖의 컬러 조합과 조형적 디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장인 정신은 피아제 컬렉션 전반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Chromatic Craft

울트라-씬 워치와 하이 주얼리,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아르데코적 조형미. 피아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곧 메종의 비전과 기술력을 상징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컬러가 자리해왔다. 오는 6월 25일부터 약 10일간 이어지는 '아트 오브 컬러(Art of Colour)' 팝업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포제션과 식스티, 피아제 폴로 등 대표 컬렉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주얼리와 워치가 오브제처럼 어우러진 공간은 피아제만의 감각적인 컬러 세계와 독창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며 메종이 추구해온 예술적 감성을 새로이 정의한다.

피아제에 있어 컬러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메종의 정체성과 미학을 관통하는 핵심 요소다. 그 출발점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터퀴이즈, 라피스 라줄리, 말라카이트 등 진귀한 오너멘탈 스톤과 골드를 결합한 비정형적 컬러 조합이 자리하며, 이 같은 디자인적 접근은 오늘날까지도 메종 전반의 컬렉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번 팝업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에서 메종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컬러 미학과 워치메이킹 헤리티지가 한 공간에 펼쳐진다.

이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은 피아제의 철학을 반영한 3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브랜드의 스타일 코드를 조형적으로 풀어낸 '형태의 미학(Play of Shapes)', 1백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해온 워치메이킹 기술을 조명하는 '울트라-씬(Ultra-Thin)', 그리고 브랜드의 정신을 대변하는 '하우스 오브 골드(House of Gold)' 존이 있다. 특히 마지막 '하우스 오브 골드' 존에서는 아이코닉 컬렉션과 함께 올해 주요 신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식스티와 피아제 폴로, 포제션 컬렉션이 중심을 이루며, 가드룬 패턴을 입은 피아제 폴로 시그니처와 지난해 주얼리 워치의 성공에 힘입어 딥 블루 레더 스트랩으로 확장한 식스티, 그리고 오너멘탈 스톤 고유의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피아제의 찬란한 색채 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오너멘탈 스톤 아틀리에 워크숍도 마련했다. 베르다이트, 타이거 아이, 소달라이트, 그리고 터퀴이즈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광물을 감상하며, 스톤에 담긴 예술성과 장인 정신,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팝업을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SSG닷컴에서만 공개되는 식스티 익스클루시브 모델도 최초로 선보인다. 메종의 '아트 오브 컬러'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이번 신작은 피아제 고유 컬러인 '라 코토페(La Côte-aux-Fées)' 다이얼이 특징으로 청명한 하늘을 연상시키는 아이스 블루 래커드 컬러 위로 태양 빛처럼 퍼지는 선레이 효과로 섬세한 그러데이션을 완성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장착해 특유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해당 모델은 오는 7월 31일까지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워치와 주얼리를 넘나드는 디자인과 컬러 감각, 메종의 장인 정신이 공존하는 이번 팝업을 통해 피아제의 세계를 한층 깊이 있게 경험하길 바란다.

문의 1877-4275 에디터 **김하얀**

1 터퀴이즈와 소달라이트 등의 스톤이 어우러진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펜던트와 이어링, 링을 착용한 피아제 글로벌 앰배서더 배우 전지현. **2** 올해 피아제는 메종의 시그니처 가드룬 패턴과 블루 컬러를 적용한 피아제 폴로 시그니처 데이트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다이아몬드 인덱스 모델을 비롯해 러버 스트랩 버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출시됐다. **3** 이번 팝업을 통해 공개된 식스티 익스클루시브 워치는 오직 신세계 강남점과 SSG닷컴에서 단독 판매된다. **4** 포제션 바이브런트 팰리스 펜던트 네크리스는 터퀴이즈, 소달라이트, 듀모티어라이트 등의 다양한 블루 원석의 조합으로 화려하게 완성했다.

피아제
'아트 오브 컬러 (Art of Colour)' 팝업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더 스테이지

기간
6월 25일(목요일)~7월 5일(일요일)

운영 시간
월~목요일 10:30~20:00
금~일요일 10:30~20:30

STYLECHOSUN.COM 대표 배정호 **편집장** 김유미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임 **에디터** 김하얀 **재원 에디터** 임지영 **디자인** 나나·버나 스튜디오 **교열** 이정희 **수정** 방민정 **광고·마케팅** 박유희 **제작** 김현기 **제작 노연정 토털 제안** 박혜미 **인쇄** 퍼퍼티에스 **발행처**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8호 **기사 및 광고 문의** 02-6965-0275

PIAGET POLO

PIAGET

Maison of *Extraleganza* since 1874